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음 4월 2일)

제204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소리축제, 문화동반자 되다

사업 공모 최종 선정
내달 중 참가자 선발
7월부터 프로젝트 돌입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년 문화동반자사업' 운영기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 세계 ODA(공적개발 원조) 수원국의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일정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전문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의 아티스트 육성, 교류를 돕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유도한다. 조직위는 지난달 말 '2018 아시아 소리프로젝트(Asia SCRI Project)' 사업

기획안을 제출했다. 제출한 기획안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총 5개국 6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할 수 있는 '아시아 전통음악 창작 레지던시' 진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조직위는 6월 중 참가자를 선발, 입국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돌입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해외 예술인들은 약 5개월간 전주에 머물면서 조사 및 워크숍을 통한 공동의 창작 활동, 지역 문화 체험과 지역 아티스트와의 교류, 한국어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소리축제는 이를 위해 전북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해 한국전통음악 이론 수업, 악기 강습, 불교

음악 워크숍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5개국에서 선발된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워크숍 등을 발판으로 공동 창작작업을 진행, '2018 소리페스티벌 앙상블'을 구성하고 한국의 시나위를 중심으로 한 창작 작품을 제작한다. 창작곡은 올해 소리축제 무대에서 초연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사업 성과를 토대로 향후 아시아 투어를 추진하는 등 아시아 음악시장에서 소리축제의 역할과 영향력을 높여나가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박재천 집행위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시아 지역 예술인들의 개인적 기량이 성장하고,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창의적인 예술 작업의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추진

수리시설개보수·배수개선 등
전북도, 올해 2403억원 투입

전북도는 올해 총 2,403억원(국비 2,339억원, 지방비 64억원)을 투입하여 11개 사업 303지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업용수공급 및 배수시설을 신설 또는 정비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현대화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등으로 용배수 처리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 672억원을 투입한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72억원을 투입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및 다양한 작물재배 여건을 조성한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상습 가뭄발생 지역에 저수지, 용·배수로, 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설치, 농촌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한 사

업으로 616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적 식량생산과 안전·편의영농을 도모한다. 가뭄대응사업은 최근 잦아지는 가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양수장 설치, 저수지 준설 및 농업용 관정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62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금강II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연간 4억8,600만톤의 금강호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용·배수로, 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0억원 확보해 추진한다. 도는 올해 이미 확보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예산 2,403억원 외에도 신규사업 발굴 등 국가예산 추가확보 노력을 통해 농업용수개발 및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상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용수관리자동화 등 선진화 된 농업시스템 구축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여름이 빨리 찾아왔다'
전북 낮 최고기온 30.2도

전북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넘으며 한여름을 방불케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북 정읍은 30.2도를 기록했다. 이어 익산·완주·무주 29.4도, 전주 29도, 부안 28.8도, 남원 28.7도, 순창 28.4도, 고창·김제 28.1도, 정수 27.9도, 임실 27.5도, 군산 27.3도, 진안 27.2도를 나타내며 도내 전지역이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 캠퍼스 안은 더위를 이기기 위해 짧은 옷차림을 한 학생들이 가득하다. 책으로 햇볕을 가리고 손 부채질을 하는 이도 눈에 띈다. 땀을 식히기 위해 얼음이 가득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곳을 지나는 한 직장인은 "불이 왔나 싶더니 바로 여름이 온 것 같다. 긴팔 셔츠를 입고 나온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매일 INDEX
12면 - 전주문화재야행 25일 개막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이 1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개막작 'AASSA'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소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만남... 퓨전 음악극 'AASSA, 필름 심청'

오는 6월 21일부터 5일간 무주에서 열리는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이 1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렸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초록빛 휴양 영화제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황정수 조직위원장과 유기하 집행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올해 영화제의 특징 및 주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어서 올해의 개막작 <AASSA, 필름 심청>의 출연출을 맡은 김태용 감독, 공동연출 윤세영 감독을 비롯한 성기완 <AASSA, 필름 심청>이 드디어 공개되었다.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개막작의 명맥을 이어갈 <AASSA, 필름 심청>은 신상욱 감독이 1972년에 연출한 <효녀 심청>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퓨전 음악극이다. <AASSA, 필름 심청>은 1회 <창춘의 심자로>, 4회 <2016, 필름판소리 춘향전>, 5회 <레게 이나 필름, 흥부>에 이어 올해 역시 영화 <만추>의 김태용 감독과 윤세영 감독이 연출을 맡아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그룹 '3호선 버터플라이' 멤버 출신인 성기완 음악 감독을 주축으로, 월드뮤직 트리오 AASSA(앗싸)와 MC 메타의 콜라보 레이션을 통한 환상적인 음악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작 연출을 맡은 김태용 감독

함께 수도권 중심의 문화혜택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6회를 맞아 크고 작은 변화들을 프로그램에 녹이며 무주에 생동감을 불어넣으려 한다."라며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다음으로 조지훈 프로그래머가 27개국 77편의 초청작 소개와 더불어 외지 관객과 무주 군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관객 서비스도 함께 소개했다. 그리고,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의 개막작 <AASSA, 필름 심청>이 드디어 공개되었다.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개막작의 명맥을 이어갈 <AASSA, 필름 심청>은 신상욱 감독이 1972년에 연출한 <효녀 심청>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퓨전 음악극이다. <AASSA, 필름 심청>은 1회 <창춘의 심자로>, 4회 <2016, 필름판소리 춘향전>, 5회 <레게 이나 필름, 흥부>에 이어 올해 역시 영화 <만추>의 김태용 감독과 윤세영 감독이 연출을 맡아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그룹 '3호선 버터플라이' 멤버 출신인 성기완 음악 감독을 주축으로, 월드뮤직 트리오 AASSA(앗싸)와 MC 메타의 콜라보 레이션을 통한 환상적인 음악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작 연출을 맡은 김태용 감독

과 윤세영 감독은 "어떤 작품을, 어떻게 꾸며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술가가 함께하는 게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이 가진 기조이자 또 하나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태용 감독과 함께 벌써 4번째 개막작을 준비하고 있다. 무대감독으로서 어떻게 더 아까운 무대를 만들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개막작 연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음악감독 및 연출을 맡은 성기완은 "새로 생긴지 얼마 안 된 밴드인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 용궁과 현실이 어우러진 영화적 배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음악 문화를 결합한 밴드의 특성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ASSA>의 멤버 아마두 디아바테는 "내가 속한 그리오 가문 역시 고전을 음악에 녹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심청전의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비슷한 아프리카 신화가 떠올랐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만나고 융합되는 작업이라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서로, 올해 무주산골영화제의 홍보대사인 '페스티벌 프렌즈'로 선정된 배우 황찬성과 박규영이 소개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람과도시
풍격이전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